

# 못이룬 꿈 기다리는 미륵불이 웃으며 반겨주는 곳



전남 화순에 가면 미륵 천불천탑이 있는 구름배라는 이름을 가진 운주사가 있습니다.

구름이 머문다는 이름을 가진 운주사는 구름이 머물 정도로 높은 지형에 있는 곳은 아닙니다. 도선 국사의 풍수설에 근거해 이곳 지명이 '구름 배와 같아서' 붙여졌다고도 하고 (동국여지승람)의 기록에 따라 '구름이 머문다'는 뜻으로 운주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운주사에 대해 누가 무엇 때문에 이곳을 만들었는지 알려진 바가 없어 그 불탑과 불상만큼 다양한 추측과 상상이 발현되어 신비한 곳으로 이해되고 있는 곳입니다.

1481년에 편찬된 (동국여지승람)의 기록과 조선 조 인조 10년(1632)에 발간된 능주읍지에는 "운주사는 현의 남쪽 25리에 있으며 천불산 좌우 산 협곡에 석불 석탑이 1000개씩 있고 석실에 두 석불이 서로 등을 맞대고 앉아있다"는 기록이 있는 걸로 봐서 1000개의 석불 석탑이 있었던게 확인되고 그 말미에 급페라는 추기가 있어 정유재란으로 인해 소실된 것으로 짐작됩니다. 지금은 석탑 17기, 석불 80여 기만 남아있습니다.

소설 (장길산)의 미륵와불로 더 유명한 운주사는 그 소설보다 더 다양한 신비감을 품고 있는 곳입니다. 일설에 전하는 운주사 창건에 대한 설화들이 몇 가지 있으나 운주사를 설명하기에 그나마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은 도선 국사 창건설화입니다.

한반도 지형을 배로 파악한 도선 국사는 배의 배꼽부분에 해당하는 이곳에 천불천탑을 조성했는데, 동쪽이 무거워 배가 기울어지는 것을 막아 균형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운주사 터가 너무 좋아서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 도선 국사가 천불천탑을 세웠다는 설도 있습니다.

운주사가 위치한 곳은 멀리서 보더라도 여자의 자궁형국입니다. 이곳은 장자 임금이나 나운 군왕이라 도선 국사가 도술을 부려 근처 30리 안팎의 돌을 불러모아 하룻밤 사이에 천불천탑을 세웠다는 전설도 전합니다. 도선 국사는 우리나라 풍수학을 집대성하여 완성한 최초의 인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운주사 터를 잡고 창건한 사람이 도선 국사라고 하더라도 왜 이곳에 미륵불상이 많이 조성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필자는 경주의 남산을 불국토로 조성한 신라불교에 대응한 백제유민들의 백제적 불국토의 표현법으로 미륵상을 조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곳 운주사를 찾는 사람들은 다양한 형태의 불상과 불탑에 놀라고 그 조성기법이 순수한 민초들의 산물인 것을 보고 놀랍니다. 부처인지, 중생인지 아니면 그도 저도 아닌 돌장승인지, 어쨌든 그렇게 투박한 불상들이 비바람을 맞으며 바람에 비스듬히 기대어 있거나 서 있습니다. 코는 닳아 없어지고 눈매도 희미하며 하나같이 못생겼어도 그래도 더 정경계만 느껴지는 것은 일상에 사탈리며 살아가는 흡사 우리들의 모습과 같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근엄한 신앙의 대상인 불상을 머슴 부처, 부부 부처, 아들 부처라 표현하고 부처님의 성품을 담은 탑을 호떡탑, 향아리탑, 갈래탑, 명당탑, 실패탑이라고 까지 표현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근엄하고 위엄이 있어야 할 부처님이 걸치레를 버리고 직접 인간 세상에 내려와 함께 힘겨운 삶을 영위하고 있는 민중들의 위안처이고 신앙지입니다. 이를 일러 후자는 운주사를 '동양의 아크로폴리스' 라며 "운주사는 학문과 예술과 사상의 총 집결체이자, 창작과 전지와 사고와 토론의 한마당이다. 또, 불교라는 종교적 울타리를 뛰어넘어 계층과 계급을 초월한 사상과 예술과 생활이 총집결된 전 민족적, 전 세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 입구의 미륵 불상

운주사는 통상적인 일반 사찰처럼 일주문과 사천왕문을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여타사찰에서 부처님을 보려면 여러 관문을 통과하고 난 뒤에 볼 수 있음에 반해 운주사에서는 사찰입구부터 길가에서 여러 부처님이 마중 나와서 사찰에 들어오는 사람을 반겨주고 있습니다. 암벽에 기대어진 여러 불상들의 수인을 보면 아미타불이나 석가모니불, 미륵불이 취하는 수인을 취하고 있으나 총괄해 미륵불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륵 부처님들이 연꽃 좌대도 갖추지 않은 채 우리들에게 방긋방긋 웃으면서 어서 오라고 맞아주고 있으니 고향집 외할머니, 어머니들이 반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 감실부처

팔각지붕 형태의 돌집으로 그 안에 두 분의 석불이 서로 등을 대고 앉아서 각 석불은 남과 북을 정확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운주사 감실은 상당 지붕이 흡사 목조건축물같이 만들어져 있으며 출입구에 해당하는 남북의 문설주 위아래에 구멍이 뚫려져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이전에는 돌문이 달려 있어 예불을 볼때 열고 닫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돌문을 열고 닫을 때 조정의 인제왕이 죽어나가기에 도선 국사의 아내가 이 돌문을 떼어 영광의



운주사 입구의 미륵불이 고향집 부모님처럼 온화한 모습으로 마중을 나온 듯 늘어서 있다.

### 철성석

운주사 입구에서 보면 좌측 산등성이에 철성석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산 중턱에 있어 아래에서는 잘 보이지 않으니 와불을 보고 나오는 길에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곳에 가져가려고 석재를 깎아 놓고 흠여 놓은 것이 아니라 그 7개 돌이 놓여진 위치와 크기가 철성의 방향과 별의 밝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 철성석을 통해 당시 천문학의

철성은 수명을 주재하는 존재로 알려져 있으므로 운주사가 영구히 흥하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사찰 초입에 조성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 와불

"미륵이 다스리는 세상은 중생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 땅에서 전쟁과 환란이 없도록 만들어야 도래한다"고 했으니 미륵신앙은 자력완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하는 신앙입니다. 운주사 와불상은 다른 곳에 세우려고 바닥에 조성하고 난 뒤에 아래 부분을 뜯어내지 못하고 그대로 남겨져 있기 때문에 바닥에 누워있는 모습으로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습니다. 불상의 수인을 살펴볼 때 비로자나불상과 석가모니불로 보입니다. 비스듬한 바위에 거꾸로 놓여져 있는 모습은 누가 봐도 안타깝고 힘들게 보여 누구라도 힘을 모아 바로 세워 보고자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소설 (장길산)에서는 "이 와불이 바로 서는 날 천지가 개벽되고 세상이 뒤바뀐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와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도선 국사의 설화가 전해옵니다. "천불 천탑을 하룻만에 완성하고자 도력으로 천인을 불러 공사를 하였는데 이제 이 마지막 와불만 세우면 공사가 완료되게 되었다. 그런데 도선 국사의 시종이 하루밤 꼬박 잠을 자지 못해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 너무 힘들어, 거짓으로 날이 밝았다고 하면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고 공사가 끝날 것 같아서 몰래 숨어서 닭 울음 소리를 내었다. 급한 마음으로 날 새기전 완성하고자 집중하고

있던 도선 국사는 어디서 들리는 닭울음소리를 듣고서 이미 날이 새버린 것으로 알고서 이 와불만 완성하면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었는데 이미 시간이 다 되어 날이 새 버렸으니 인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가 보다 생각하며 공사를 중단했다"고 전합니다. 이후로 이 불상은 미완성의 유포피아에 대한 갈망을 불러오는 성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미륵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열려고 했던 수많은 노력들은 후삼국시대를 넘어 고려와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됐습니다. 수많은 미륵살주제, 미륵역모사건과 동학에 이르기까지 미륵후천의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으나 모두 성공하지 못했으니 이 미륵을 일으켜 세우야 하는 것은 오히려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몫이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습기가 많은 분지라서 그런지 자주 많은 안개가 끼는 이곳 운주사에는 미완성 신화를 간직한 수많은 미륵들이 오늘도 운무속에서 구름배를 타고 새 세상을 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도된 가치관이 바로 되는 새로운 세상은 반드시 도래하니 세상의 역경을 딛고 힘차게 살아가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글 · 사진 한지유 mytra@naver.com 한국생활문화연구소 소장 파라미터청소년협회 문화재 강사

## 와불이 바로 서는 날 천지가 개벽한다는 곳 소설 '장길산' 미륵와불 이야기 등 설화 가득

칠산 앞바다에 내다버렸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선 국사는 15세에 승려가 되어 평생 결혼을 하지 않는 승려 신분이었는데 아내가 있다는 말은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아마도 영험있는 감실이라는 의미의 미륵 강조하고자 만들어진 전설 같습니다. 남쪽에 계신 부처님이 석가모니불 수인을 취하고 있고 북쪽을 향해 있는 분은 지권인을 갖춘 비로자나 부처님입니다. 석가모니불과 그 본질 면목인 법신불을 모셨으니 두 분인 것처럼 보여도 한분임을 상징하는 감실입니다. 운주사 전체를 살펴볼 때 여기 감실 부처님이 계신 곳이 운주사의 중심 신앙지가 됩니다.

수준이 얼마나 높았는지 알 수 있는 사료가 되고 있으며 현대의 과학적인 기구가 없어도 별에 대한 위치나 방위각이 얼마나 정확인지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합니다. 이 철성석이 사찰 입구 쪽에 위치하는 것은 통상적인 배치법과는 맞지 않습니다. 원래 철성신앙은 중국의 도교나 우리나라 민간신앙에서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불교가 민간신앙을 수용하면서 사찰로 들어오게 되어 사찰 외각지역에 산신과 함께 봉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주사의 철성석은 사찰 진입구에 위치하고 있는데 철성석 위치는 처음부터 운주사 진입구에 배치됐던 것 같습니다.

##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지 순간전기보일러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기든 등에 설치 최적합

사찰 · 포교당 ·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 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 슈퍼에너지 순간전기보일러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454-1 / 사무실 : (02) 471-2356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 인터넷 게임 중독, ADHD 학생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학교!



산골작은학교 수오학당 교육상담(교무실)  
(054) 751-3721

우리 학당은 경주에 있는 서당형 대안학교입니다.

인터넷 게임 중독으로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학생,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로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받거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보살피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생활교육방식을 통해 배움을 몸으로 익히고 실천하는 공부를 합니다.

우리 학당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인성을 회복하고, 자신의 꿈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을 함께 나눌 학생들을 모집 합니다.

